

# 더 큰 세상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함께 사는 미래

online newsletter

탈북청소년들이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2022 Vol. 35



##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칼럼  
02

윤상석 교수  
(공존플랜 소장)

탈북학생  
교육 지원 정책  
개편 방안



기획기사  
04

정은영  
(프리랜서 기자)

2022년 제13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인터뷰 1  
06

백○○  
(동방중학교  
통일전담교육사)

통일전담교육사  
인터뷰



인터뷰 2  
08

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미술학원 강사)

HOPE 1기 졸업생  
인터뷰



현장스케치  
11

김민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성장멘토링(VAS)  
멘토-멘티  
관계 증진캠프



센터활동소식  
13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오리엔테이션  
(2차) 외



센터발간자료  
17

2022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



## 탈북학생 교육 지원 정책 개편 방안

: 누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지원 범위, 정책 방향,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2021년 제12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에서도 탈북학생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 ‘북한배경학생’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었다.<sup>1)</sup>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또는 ‘탈북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기도 했다.<sup>2)</sup>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19명이다. 이처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탈북학생의 지원 범주를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촉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정책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조항을 포함시킬 당시에도 있었고, 남북하나재단의 연구용역(이기영 외, 2014)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루어진 바 있으며, 2020년 박사논문<sup>3)</sup>에서도 탈북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감할 것을 예측해서 선행된 연구나 정책 분석은 아니었다. 연간 1,000여명이 넘게 입국했던 당시에는 북한 출신의 탈북학생 뿐 아니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예산과 인력, 인프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의 초기 정착과 학교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지원

역량의 최대치를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상황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에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하기 보다는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검토 수준에서 다루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입국 후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성장해 학교에 입학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적응에 있어 공부정적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더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탈북학생의 범주로 보는 북한 출생 또는 제3국 출생의 경우 ‘남한’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경험하게 되고 언어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자연스러운 정착륙에 어려움이 있기에 입국초기부터 정착지 학교 적응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대부분은 본인이 국가 단위의 이주를 경험하거나 그로 인한 언어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 역시 본인이 국가 단위의 이주를 경험하지 않고 그로 인한 언어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결혼이민자<sup>4)</sup>로서 양육자의 이주 경험과 국내 정착 과정이 자녀의 언어, 신체 발달, 문화적 감수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의 이주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사의 역할에서 찾아본 탈북학생 교육지원방안. 제12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p. 3.

2) 이기영 외(2014).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정책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남북하나재단, p. 95.

3) 노은희(2020). 심리상담 전문가의 탈북배경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모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받고 생활 하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거의 모든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한국의 초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에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보완해주기 위해 다문화가족 정책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감안했을 때 교육부의 탈북학생(또는 탈북배경학생, 북한배경학생)의 범주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자녀로 정리하고 지금까지 자녀의 출생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이탈주민’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관련법에서 정하는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적절한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별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줄게요.’였던 지원 체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 도움이 필요해지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을 원치 않고,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담당 교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 또는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시키고 관련 사항은 유관기관과 공유되는 방식이 구축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탈북학생 지원 정책에서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자녀는 출생지와 무관하게 모두 정책 대상으로 삼되, 보호자와 담당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원 대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탈북학생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 모두가 일관성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란 ‘개인 중심의 접근에서 가족 통합적 접근으로’, ‘단기적 지원 위주에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개별 부처 차원의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누구를(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모두), 어떻게(가족 통합적, 부처통합적), 언제까지(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탈북학생 대상 교육지원을 할 것인지 공론화하고 결심하여 실행할 ‘골든타임’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 2022년 제13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 정은영 | 프리랜서 기자

지난 12월 1일(목),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2022년 제13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렸다.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그동안 탈북학생들로 하여금 맞춤형 성장을 경험케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교원의 사기 진작 및 탈북학생 교육 전문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최사와 심사평은 물론 시상식과 최우수 수상자들의 사례 발표까지,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 'KEDI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다.

교육부 학생 지원국 이해숙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 넘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학생들의 사회적응과 진로 진학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고 2008년에는 10%가 넘는 학급 중단율도 현재는 2000명 중 1%로 낮아졌다.”며 이러한 결실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학교와 선생님들, 교육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고’임을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탈북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심사에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인교대 이지영 교수는 심사 총평을 통해 “올해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는 3~4년 또는 그 이상을 탈북학생 곁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며 함께 있어 주셨던 선생님들이 유독 많았다.”며 그 학생들에게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던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 멘토링의 중요성’과 ‘학생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탈북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포함한 인식 개선 교육의 기대’에 대해서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심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지영

교수는 ‘교육사례를 쓴다는 것은 탈북학생의 일상을 기억으로 남기고 교사의 성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뜻깊은 과정’이며 또한 ‘탈북학생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또 다른 탈북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후배 교사들을 위한 탈북 교육의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체 심사를 통한 추천과 탈북학생 교육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단의 엄격한 1차(서면)·2차(면접) 심사를 거쳐 총 13편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김혜정 교사(인천 약산초등학교)와 양나리 교사(대전 대덕초등학교), 김민영 교사(경남남여초등학교), 나병홍 교사(송곡여자중학교), 이승희 교사(현산중학교)와 윤제희 교사(드림학교) 등 모두 6명이 선정되었고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하늘초등학교가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그 밖에 개인 부문 우수상은 한수현 교사(서울상수초등학교)와 남은미 교사(대구성동초등학교), 김유정 교사(전남삼호중학교)와 손나영 교사(대구서재중학교) 등 모두 4명이 선정되었고 단체 부문 우수상은 경기성사초등학교와 광주정광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되어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다.



▲ 수상자들 단체사진



시상식 이후 최우수상을 받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발표한 개인 초등부문 김혜정 교사(인천 약산초등학교)는 「You are my one and only student」 사례 발표를 통해 2년 전 담임을 했던 중국 출생 탈북 학생의 낮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심리 및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멘토링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다문화 교육 정책연구학교인 대덕초등학교에서 2년째 한국어 학급 담임을 맡아오고 있는 양나리 교사(대덕초등학교)는 교과 어휘력 및 지문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학습 멘토링과 아쿠아리움, 과학관, 베이킹 클래스, 뮤지컬 관람 등 주말을 이용한 문화 향유 멘토링을 진행했다. 「온 마음을 담아 너를 응원해」 사례 발표를 통해 탈북 학생은 물론 본인 자신의 동반 성장의 경험을 함께 들려주었다.

다음으로 「멘토의 손길과 멘티의 발걸음」에 대해서 발표한 나병홍 교사(송곡여자중학교)는 내신과 진로 진학 활동을 위한 ‘맞춤형 1:1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학생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믿으며 학생 스스로의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더불어 탈북학생을 지도하게 될 미래의 후배 교사에게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도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이승희 교사(현산중학교)는 「도전과 결실의 성장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4년이란 기간 동안의 탈북학생의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했다.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대학진학상담 활동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성장 멘토링을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소통은 물론 ‘어려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시키며 학생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하며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윤제희 교사(드림학교)는 지난 해 2학년으로 올라온 제3국 출생 9명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자 멘토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한 진로 탐색의 과정은 물론 특별히 기억에 남는 3명의 학생을 소개하는 「드림이들의 진로 탐색과 희망 드림(Dreaming)」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하늘초등학교의 최하영 통일전담 교육사로 「I&YOU 어울림」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소개했다. 최교육사는 인식개선 프로그램(북한문화 토크 콘서트, 북한 전통놀이 체험 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상담 활동(학생과 학부모 개별 상담은 물론 성장 멘토링, 가정방문 등)은 물론 사회성 증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독서 동아리와 한국어 교실, 대학생 멘토링, 방과 후 교실, 원어민 영어 멘토링, 공예활동, 전래놀이, 가족 동반 캠프) 등 다양한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현실적인 탈북학생의 교육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사례 발표

탈북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사랑이 전해졌던 이번 <2022년 제13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는 탈북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교육 현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13편의 수상작 내용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2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이라는 제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배경,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우수 교육 사례들이 축적되어 탈북학생 교육의 본보기가 됨은 물론 탈북학생 교육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통일전담교육사 인터뷰

우리 학생들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백○○ | 동방중학교 통일전담교육사
- [인터뷰] 김단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KEDI**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동방중학교에서 통일전담교육사로 일하고 있는 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KEDI** ‘통일전담교육사’가 무엇인지, 학교에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백○○ ‘통일전담교육사’라는 직업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탈북민, 그리고 탈북학생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인천 OO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탈북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탈북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청과 남북하나재단이 연계하여 통일전담교육사를 학교에 배정하고 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저의 주 업무는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상담이고, 탈북학부모 상담도 함께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 적응 상황이나 남한 학교 시스템을 잘 모르시거든요.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탈북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있어요. 특히 예체능 분야에 잠재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 예체능 쪽 프로그램을 자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KEDI** 탈북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시다고 하셨는데요. 업무 범위가 무척 넓은 것 같습니다.

백○○ 네. 맞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체능 분야의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심리·정서 지원,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직접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자녀가 뭔가 배우고 싶어 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디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비용문제로도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선뜻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제가 연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해하십니다. 저도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 탈북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KEDI** 탈북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고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탈북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시면서 우리 탈북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백○○ 학습지원이요. 우리 탈북학생들이 수학, 영어 등 기본적인 교과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과외나 학원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기엔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체능 쪽 지원이나 진로·직업 교육 지원만큼 교과 학습 관련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KEDI 통일전담교육사로 일하시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백○○** 사실 지금까지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에겐 지원이 잘 이루어졌지만, 국내 출생 학생들에겐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국내 출생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북한 배경의 학생 중 80%가 국내 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내 출생 학생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옆에서 그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제 역할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국내 출생 학생들도 탈북학생들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KEDI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출생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어요.**

**백○○** 반가운 소식이에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심리·정서 지원 사업은 국내 출생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제가 본 국내 출생 학생들은 유독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KEDI 학교 현장에서 탈북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일전담교육사로서,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백○○** 물론 진로상담,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학습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각자 맡은 업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과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KEDI 탈북학생을 지도하시는 다른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백○○** 사실 우리 학생들이 ‘탈북’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말 싫어해요. 그렇기에 웬만하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세심하게 학생의 가정생활이나 환경을 살피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보기엔 무난하게 잘 지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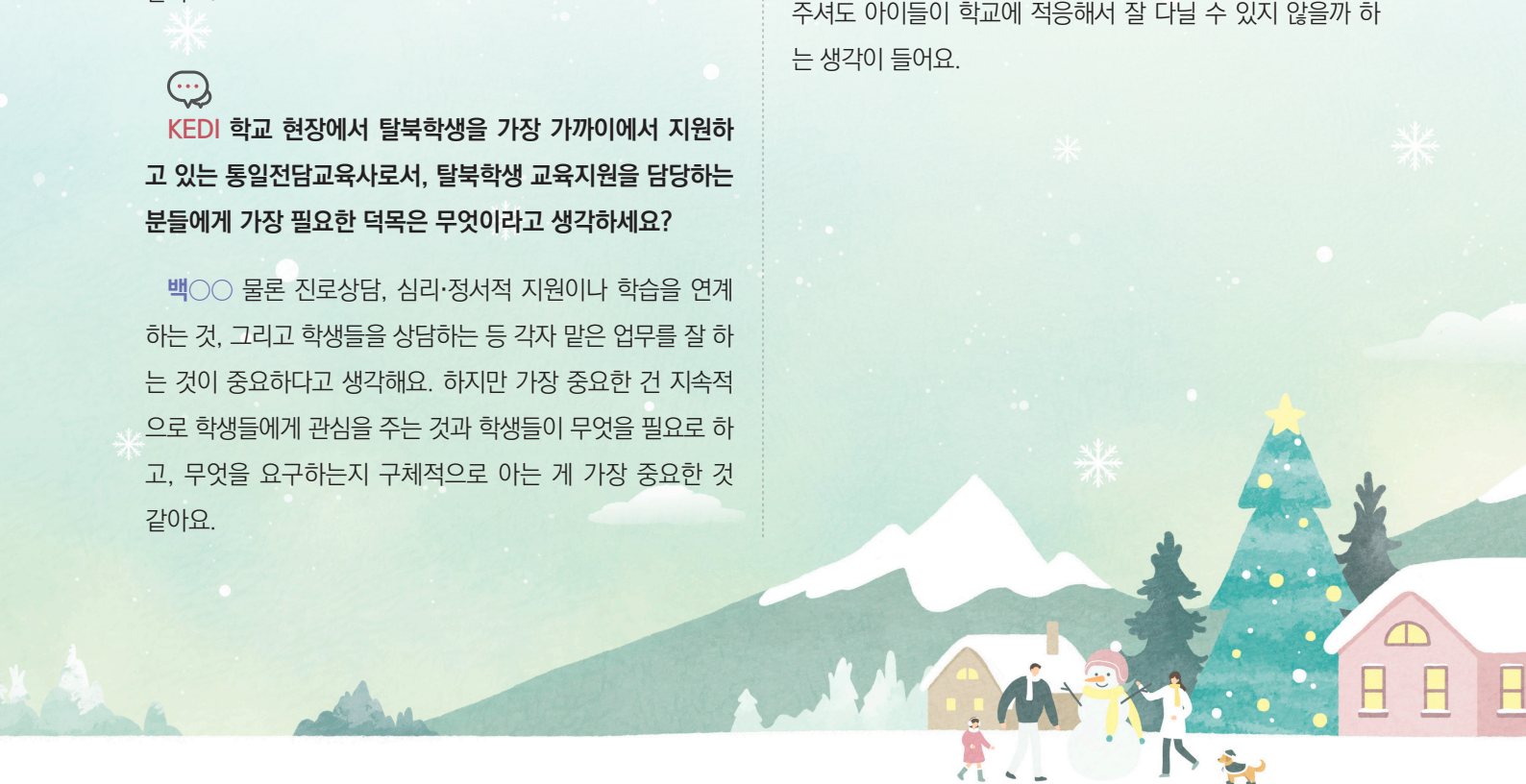
**KEDI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백○○** 우리 탈북학생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학교도 잘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여러모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KEDI 마지막으로 탈북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백○○**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의 맘을 알아주고, 소통해주고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만 잘 해주셔도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해서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HOPE 1기 졸업생 인터뷰

HOPE는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거 같아요.



**KEDI**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HOPE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전공을 살려 강남에 위치한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HOPE 1기 졸업생이자 HOPE 선배인 고○○입니다.



**KEDI** HOPE 1기 졸업생이신데, 처음 HOPE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 사실 그 당시엔 제가 많이 어려서 큰 꿈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미술에 관심이 있는 걸 알고 계셨고, 전문가 선생님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다면 추천해주셨습니다.



**KEDI** HOPE에 참여하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고○○** 멘토 선생님께 그림 그리는 것을 직접 배우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등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매주 했어요. 홍익대 미대 출신의 교수님인 멘토선생님 덕분에,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모른 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고○○**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미술학원 강사
- [인터뷰] 김단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KEDI** HOPE가 선배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HOPE 활동을 하기 전에는 미술을 좋아하기만 했지 미술 관련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멘토 선생님과 함께 HOPE 활동을 꾸준히 하며 미술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고, 저의 진로에 대한 방향도 확실히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HOPE 참여 당시 고○○ 선배의 모습



**KEDI** 언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도 자주 받았었고요. 그래서인지 중학교 3학년 때 주변에서 예고입학을 추천 해주셨고, 담임선생님과 여러 어른들의 도움으로 예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KEDI 예술고등학교 입시 준비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고 입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고○○** 아무래도 예고에 입학하려면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 그림도 잘 그려야 하는데요. HOPE 활동과 함께 입시 미술 학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입시미술학원에선 입시에 적합한 그림만 계속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학교 공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KEDI 진로 결정에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엔 진로 결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HOPE 멘토 선생님같이 주변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도움의 손길이 많았거든요. 다만 내가 동양화, 서양화 등 여러 그림 종류 중 어떤 그림을 더 잘 그리는지, 그리고 내 그림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의 아주 섬세한 고민은 끊임없이 했었어요. ‘미술’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미술가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어떤 작품을 전시해야 할지 같은 거요. 이런 고민들도 HOPE 멘토 선생님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KEDI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고○○** 어릴 때부터 남한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우 관계나 일반적인 학교생활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공부 쪽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술 실기는 제가 제일 잘 했는데 공부, 특히 영어 과목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림은 제일 잘 그렸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때문에 저는 자신감 충만하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KEDI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꼭 해오시면서 그만두고 싶거나 슬럼프가 온 적은 없나요?**

**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잠시였지만 그림 실력만큼이나 공부까지 잘하고 싶은 욕심에 학구열이 불타오른 적도 있었으니까요.



**KEDI 현재 미술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일 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고○○**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처음엔 힘들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일한지 오래 돼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KEDI 고OO 선배님께 미술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OO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한국에 와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게임하느라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여러모로 힘들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미술이 제 자존감을 올려주었어요.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었던거죠. 따라서 미술은, 저에게 있어 제 분신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 KEDI 그렇다면 고OO선생님에게 HOPE란?

고OO 사실 HOPE활동을 할 당시엔 어리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때를 돌아보니 HOPE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미술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테고, 꿈을 키우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HOPE는, 저 같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좋은 멘토 선생님을 통해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KEDI 마지막으로 HOPE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참여 할 후배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OO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람은 자신이 제일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닦아서 미래에 대한 설계와 희망을 품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만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질 거예요.







## 성장멘토링(VASI) 멘토-멘티 관계 증진캠프

• 김민지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성장 멘토링(VASI) 멘토-멘티 관계 증진 캠프」를 지난 10월 22일-23일 1박 2일간 서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장 멘토링(VASI)은 탈북학생의 안정적 적응과 성장지원을 목표로 현직 교원과 2년 이상 진행하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멘토-멘티 관계 증진캠프에는 총 22팀, 멘토 22명, 멘티 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성장멘토링 캠프 단체 사진

이번 캠프는 ‘따로 또 같이’ 콘셉트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멘토-멘티가 사전에 계획한 활동, 즉 개별 멘토링을 자유롭게 실시하고, 각 팀에게 부여된 사진 촬영 시간에 맞춰 촬영장에 도착한 후 각 팀의 프로필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촬영장으로 가는 길은 가을빛이 가득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멘토, 멘티 모두 넓은 촬영장 실내와 카메라, 각종 조명 장비로 인해 긴장한 듯 보였으나 곧 긴장을 풀고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팀은 두 명의 자매 멘티들과 한 명의 멘토 선생님이 이뤄진 팀으로 마치 가족사진 느낌으로 즐겁게 촬영에 임하였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촬영을 마친 이 팀은 사전에 계획대로 즉시 놀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멀리서, 가장 일찍 출발한 두 팀이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남에서 온 팀들이었습니다. 이 두 팀은 평소에도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캠프에서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계획대로 사진 촬영을 마치고 광화문 일대에 공 투어와 청계천 걷기, 인사동 구경을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촬영장은 매시간 정말 다채로운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위해 멘토-멘티가 커플티를 입고 오는 팀, 비슷한 색이나 비슷한 패턴의 옷을 입고 오는 팀, 둘만의 포즈를 맞춰 온 팀, 멘티 학생이 고3이라 졸업 기념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정장을 입고 온 팀 등 각 팀이 가진 색깔을 다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멋진 사진 작가님과 인증 사진을 남겼던 멘티 학생은 촬영장의 모든 스티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전문 모델처럼 여러 포즈를 연습해왔던 멘티 학생은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신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멘토 선생님과 멘티 학생들이 함께 한 시간만큼 닳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 프로필 촬영 당시의 멘토멘티 모습

멘토-멘토 사진 촬영 이후에는 아래 층으로 촬영 장소를 옮겨 멘티 단독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멘티 단독 촬영이라 쑥스러움이 묻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포즈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함께 계신 멘토 선생님과 성장 멘토링 담당자들의 응원과 격려로 이내 금방 적응하였고, 나름의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기다리는 앞, 뒤 시간에는 진로·진학상담선생님과 함께 하는 ‘멘토-멘티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팀빌딩 프로그램은 이야기 카드를 활용하여 멘토-멘티가 서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선생님의 유쾌한 진행 덕분에 프로그램 장소 밖까지 멘토-멘티의 웃음 소리가 크게 흘러나오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사진 촬영이 모두 끝나고 흠어져서 멘토링을 진행하던 모든 성장 멘토링 팀들이 저녁 식사를 위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드림머스’라는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드림머스는 발달장애인과 비 발달장애인이 한 팀 이뤄서 만든 창작 뮤지컬로 딸을 찾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공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멘토-멘티 모두 집중하여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울림을 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멘토-멘티가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야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담당자인 저에게 야식 메뉴인 치킨을 받아 갈 때 까지만 해도 멘토-멘티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멘토-멘티 둘만의 대화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날은 참석자 모두 조식 이후 자유롭게 인근의 문화탐방을 즐기고 해산하였습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캠프에 참여한 멘티 학생들은 멘토링을 진행한 시간만큼 훌쩍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장 멘토링 담당자인 저에겐 오랜만에 대면으로 멘티 학생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멘토 선생님들을 직접 보며 그 진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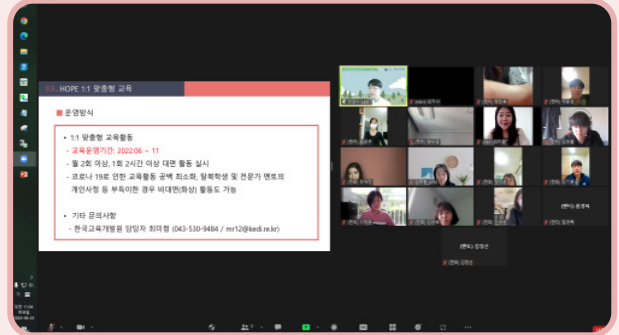
## 센터활동소식



###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오리엔테이션(2차)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HOPE 프로그램') 11기』 제 2차 오리엔테이션이 2022년 6월 25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은 신규 선발학생과 전문가 멘토 선생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으로서, 효과적인 HOP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토-멘티 사전교육, 전문가 멘토 위촉식, 멘토-멘티 결연식, 그리고 교육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팀별(멘토-멘티) 소그룹 활동의 시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 **행사명**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오리엔테이션(2차)
- **일 자** 2022년 6월 25일(토)
- **장 소** 온라인(ZOOM)
- **대 상** HOPE 11기 2차 신규 선발 학생, 2차 신규 전문가 멘토
- **내 용** HOP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토-멘티 사전교육, 전문가 멘토 위촉식, 멘토-멘티 결연식, 교육활동 운영방안 계획 등
- **문 의** 최미령 연구원(043-530-9484 / mr12@kedi.re.kr)



### 2022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밀집학교 워크숍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2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밀집학교 워크숍』을 2022년 8월 18일(목)~8월 19일(금) 1박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탈북학생 밀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업 과정 및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시·도 교육청의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 현황과 학교별 특색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탈북학생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행사명** 2022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밀집학교 워크숍
- **일 자** 2022년 8월 18일(목)~8월 19일(금)
- **장 소** 삼죽초등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라마다 앙코르 원덤 바이 천안
- **대 상** 탈북학생 밀집학교 교사 및 관리자, 교육청 탈북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 **내 용** 2022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사업안내, 교육청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 현황 공유, 학교별 탈북학생 특색 사업 추진 현황 공유, 탈북학생 밀집학교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안내, 질의 응답
- **문 의** 김단영 연구원(043-530-9481/danyoung@kedi.re.kr)



### 2022학년도 통일부 하나원(하나둘학교) 파견교사 정례연수[2차]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학년도 통일부 하나원(하나둘학교) 파견교사 정례연수[2차]』가 2022년 10월 28일(금)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3rd스페이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연수는 현재 하나원 하나둘학교에 파견되어있는 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협의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2022년학년도 통일부 하나원(하나둘학교) 파견교사 정례연수[2차]
- 일 자 2022년 10월 28일(금)
- 장 소 (주)하이퍼스테이션 3rd스페이스(서울시 서초구 소재)
- 대 상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 10명
- 내 용 [특강] 탈북학생의 대인 관계 지도: 탈북학생과 부모 관계 소통, 탈북학생의 포괄적 심리정서적 특징에 따른 사례별 탈북학생 적응 지도방안 [파견교사 간담회] 정착지 학교와의 안정적 연계 방안 검토를 위한 협의간담회
- 문 의 최미령 연구원(043-530-9484 / mr12@kedi.re.kr)

###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온라인 진로 토크콘서트[1,2차]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HOPE 프로그램') 11기』의 온라인 진로 토크콘서트가 2022년 10월 29일(토), 2022년 11월 5일(토)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진로 토크콘서트는 HOPE 11기 참여 학생들의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 교사 및 공무원, IT 및 개발자, 일러스트레이션(디자이너 분야) 총 4개의 분야를 토크 주제로 선정하였고, 각 분야별로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해당 분야 직업 세계에 관한 생생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온라인 진로 토크콘서트[1,2차]
- 일 자 2022년 10월 29일(토)[1회차]  
2022년 11월 5일(토)[2회차]
- 장 소 스튜디오 아인스 및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 대 상 HOPE 11기 멘티 학생 27명
- 내 용 분야별 전문가에게 듣는 생생한 직업 이야기, 영어 및 수학 학습컨설팅, 진로 상담  
[1교시] 분야별 전문가 토크 콘서트1(중국어, IT)  
[2교시] 분야별 전문가 토크 콘서트2(교사, 일러스트레이션)  
[3교시] 영어 / 수학 학습 컨설팅
- 문 의 최미령 연구원(043-530-9484 / mr12@kedi.re.kr)

## 2022년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성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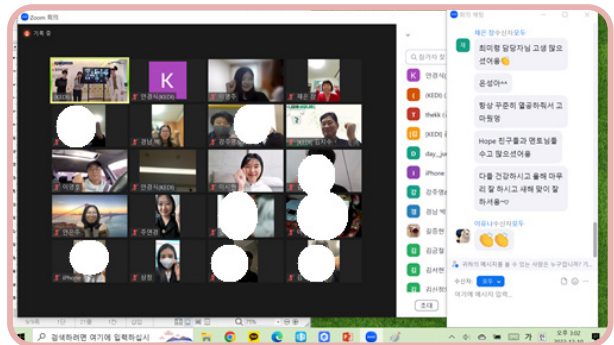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성과공유회』를 2022년 11월 11일(금)~11월 12일(토) 1박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진로상담 성과공유회는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단'과 일정을 함께 하였고, 탈북학생 교육기관 탐방, 진로상담 사례 공유 등 진로상담단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2022년 찾아가는 진로상담 성과공유회
- 일 자 2022년 11월 11일(금) ~ 11월 12일(토)
- 장 소 하늘꿈중고등학교,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 대 상 2022년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 내 용 2022년 찾아가는 진로상담 성과 및 사례 공유, 탈북학생 교육기관(하늘꿈중고등학교) 탐방,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 문 의 정유진 연구원(043-530-9488 / kedi20220509@kedi.re.kr)

##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수료식 및 결과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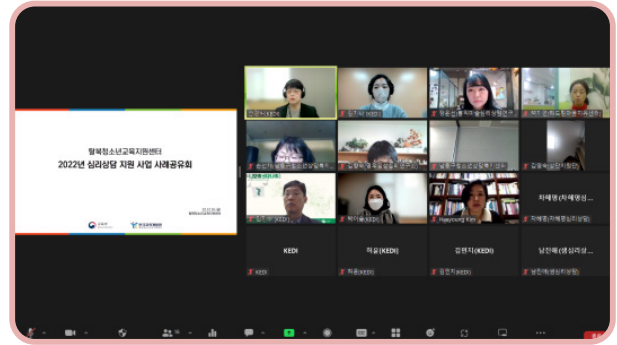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HOPE 프로그램') 11기』의 수료식 및 결과보고회가 2022년 12월 10일(토), 서울에 위치한 상상캔버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만큼 HOPE 11기에 참여해주었던 멘티학생과, 전문가 멘토가 함께 참여해주었습니다. HOPE 11기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전문가 멘토 및 멘티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2023년도 HOPE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 행사명 2022년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11기 수료식 및 결과보고회
- 일 자 2022년 12월 10일(토)
- 장 소 상상캔버스 및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 대 상 HOPE 11기 수료대상자(멘티학생) 25명, 전문가 멘토 23명
- 내 용 수료식, 교육활동 사례발표(요리, 웹툰, 영어), HOPE 11기 교육활동 결산 영상시청, 소감, 2023 HOPE 안내 등
- 문 의 최미령 연구원(043-530-9484 / mr12@kedi.re.kr)

### 💡 2022년 탈북학생 심리상담 사례공유회 실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 사례공유회』가 2022년 12월 16일(금),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사례공유회는 탈북학생 심리상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 상담 기관에서 탈북학생을 직접 상담했던 심리상담사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상담사의 사례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탈북학생 상담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행사명 2022년 탈북학생 심리상담 사례 공유회
- 일 자 2022년 12월 16일(금)
-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 대 상 지역 상담기관 탈북학생 심리상담사 및 관계자
- 문 의 김지나 연구원(043-530-9485 / jina@kedi.re.kr)







## 센터발간자료



### 2022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

「2022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은 <2022년 제13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가족 연계 및 심리 안정에 기반을 둔 통합적 교육지원,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사례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hub4u.or.kr](http://www.hub4u.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hub4u.or.kr](http://www.hub4u.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명** 2022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
- **대 상** 탈북학생 지도 교사 및 교육 기관
- **내 용**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우수사례(개인, 학교)
- **문 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8 /[kedi20220509@kedi.re.kr](mailto:kedi20220509@kedi.re.kr))

2023년에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계속됩니다.

- [원격연수]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15차시)를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http://www.neti.go.kr))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에도 지속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찾아가는 진로상담”, “돌봄지원팀”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성장 멘토링(VASI)” 참여 인원이 확대됩니다. 공문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북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자료,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43-530-9481~2)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